



순천만 겨울진객 흑두루미떼 비상

4일 오후 겨울 진객 흑두루미가 순천만 인근의 논밭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따르면 예년에는 약 10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냈으나, 이번 겨울에는 이미 1000여 마리를 넘어섰고, 한파가 1-2차례 더 오면 개체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갯벌 26년간 135km² 사라졌다

<광주시 북구 면적 규모>

매립, 연륙·연도교 건설, 방파제 등 개발에 문헌 ‘생명의 보고’

질적인 하락도 커... 낙지·짬뽕어·칠게 등 어족자원 매년 감소

생태계의 보고이자 대표자원인 전남의 갯벌이 26년간 광주시 북구 면적 이상 사라졌다. 매립, 연륙·연도교 건설, 방파제 설치 등 개발이 그 원인이다. 이와 함께 점안시설, 방파제 등으로 인해 해안선이 변

경되면서 그 ‘질’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일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갯벌 면적은 지난 1987년 1179.1km²에서 2013년 1044.4km²로, 총 134.7km²가 감소했

다. 광주시 북구 면적(120.3km²)보다 넓은 갯벌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은 1987년 3203km²에서 2487.2km²로 715.8km²가 줄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갯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내 갯벌 면적은 우리나라 전국 갯벌면적 중 약 42%를 차지하며, 전남 갯벌의 47.39%는 무안·신안에 있다.

갯벌이 양적으로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질적 하락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해안 주변 및 섬 거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선착장, 어항 등 점안시설은 물론 방파제가 꾸준히 들어서면서 갯벌 표면이 단단해지고, 굴이 깊어지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낙지, 짬뽕어, 칠게 등 어족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신안·무안 지역 섬 주민들의 주장이다.

전남도가 최근 실시한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무안갯벌에는 연체동물 등 저서무척추동물 240종, 조류 52종, 염생식물 45종, 식물성 플랑크톤 등 5개 항목 416종이 살고 있다. 신안갯벌에는 저서무척추동물 182종, 조류 45종, 염생식물 18종 등 3개 항목 245종의 자연자원이 산재해 있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갯벌의 절반이 신안·무안에 집중돼 있는데 최근 선착장, 방파제 등이 들어서면서 갯벌이 줄고 있다”며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7년 만에...

전남 인구 늘었다

혁신도시 영향... 190만8996명

전남 인구가 2015년 말 190만8996명을 기록, 지난 1998년 이후 17년만에 인구가 증가했다.

전남에서 광주가 분리된 1986년 이후 30년 동안 전남 인구가 늘어난 것은 1998년과 2010년 두 해 뿐이었다. 이 가운데 2010년은 전국 거주 불명자 일괄 등록 때문으로, 순수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1998년 단 한 차례뿐이었다.

4월 전남도에 따르면 인구의 도시 집중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30년간 계속 급감했던 전남 인구가 2014년 감소 폭이 1000명대로 줄었다가 2015년 증가로 돌아서 2014년보다 3216명, 2013년보다 1824명이 늘었다.

또 지난 8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5년 127만1188명으로 2014년보다 2699명, 2013년보다 782명이 증가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했다. 이 같은 인구 증가는 타 시·도로부터의 순유입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5년 전남도 순유입 인구는 3919명으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나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한몫했다. 또 순천, 광양, 무안, 구례 등에서 인구 증가도 두드러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6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모든 정책을 집중한 것에 따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등 꾸준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 8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삼한사온 실종 불같은 겨울 ▶2면
누리과정 공방 2라운드 ▶6면



소록도병원 개원 100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신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뉴스 초점 분당정국 고심 깊은 호남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분당 사태 등 야권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광주·전남 정치권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장, 더민주를 탈당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치적 입지 확보는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안 의원의 “신당 참여와 총선 공전은 별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 내부적으로도 “탈당한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핵심’ 이미지에 부담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약해지는 존재감 ‘좌불안석’

‘더민주’ 지역 민심 곱지 않고 ‘안신당’ 가자니 공천 불안 ... 호남신당 입지도 좁아져

지역 민심의 눈길도 곱지 않다. 정치적 생존 차원이라지만 탈당 직후 안철수 신당행은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반응이다. 탈당을 하더라도 곧바로 안철수 신당으로 가기 보다는 중간지대에 머무르며 신당 세력의 통합에 나서는 등 야권 재편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주 문제인 대표는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인양 하는 것을 호

남 민심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더민주에 잔류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핵심 주류 성향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좌불안석이다. 더민주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지만 탈당을 하더라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지역 여론 등을 지켜보며 더민주 잔류와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더민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신년을 맞아 주관한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하례식에는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모토로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는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야권 재편 정국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신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바람에 밀려 저조한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호남의 신당 세력들이 종국엔 안철수 신당에 흡수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당 추진의 중심 의제였던 ‘호남 개혁정치 복원’도 안철수 신당 바람에 점차 묻혀가는 양상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그동안 현실에 안주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업자득이라는 평가와 함께 호남 민심이 이번 야권재편 과정에서 보다 전략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 재편 과정에서 호남 정치권의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10년 후를 기억할 수 있는 세대교체를 주문하는 등 지역 민심의 전략적 선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3차 산업혁명
강제된 효율 비관만
미래가 달라집니다.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

Smart, Clean, Kind 한국전력공사
희망 2016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감동의 에너지 한국전력의 손 끝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와 융합의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Smart Energy Creator, KEPCO

www.kepco.co.kr